



대한전문건설협회, 관내 건설현장 방문·격려

전라북도과 전주시의 하도급 전담부서는 지난 22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서완산동 힐스테이트어울림호차(금호건설), 태평동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송천동 포레나전주에코시티(한화건설) 등 지역 내 대형 건설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도내 2,600여 전문건설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의 현황을 알리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참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김윤상 기자



중화산2동, 옥상에 텃밭 '하늘농장' 조성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동장 김수정)은 23일 중화산2동 공동체인 '꽃두릅마을'(대표 전덕일)과 함께 중화산2동 주민센터 옥상에 330㎡ 규모의 텃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텃밭에는 고추, 상추, 썩갓, 부추,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가 심겨졌다. 텃밭의 채소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으로 재배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여기에서 수확한 채소로 김치를 담아 관내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 체육계의 변화의 바람 '술술'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취임 100일 맞아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초대 민간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뒤 지난 1월16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 정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대신 '변화와 혁신을 위한 특별TF팀'을 운영하는 등 내실을 탄탄히 다져왔다. 코로나19로 취임식을 무기한 연기한 채 업무과외에 집중한 정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 회장은 대학·실업팀 창단을 위해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과 각 대학교, 기업체 등을 잇따라 방문해 실업팀 창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 회장은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꿈나무 선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가정 체육영재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선수 발굴·육성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방승국과 협의 중이다. 정 회장은 "최근 방송을 보면 오디션 관련 프로그램



이 많고 인기가 높다"며 "전국 최초로 체육회 주관 '체육 영재 오디션'을 추진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꿈나무들을 적극 찾아·육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으로 송출되면 선수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인기종목이 아닌 비인기종목 위주로 영재 오디션을 펼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지도자 처우개선과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내년부터는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사무공 운영을 위해 업무가 유사한 부서를 통합하는 등 여러 각도로 조직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전북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의 손길을 보냈다. 공단 백순기 이사장과 강성필 노조위원장은 23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403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합동으로 성금모금 운동을 추진했다. 백순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잃은 게 많지만 이를 교훈 삼아 공단이 관리하는 전 시설의 위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항이 안정된 이후에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온라인 개학, 가정방문 원격학습 지원 실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교의 4차 개학연기에 따른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원격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가 원격학습을 듣는 동안 부모의 학습지도가 필요하지만 일부 다문화가정 엄마들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이해가 늦을 수도 있으며 생업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의 교육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원격학습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은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322-1130)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오교만 고창군 체육회장, "내실 다지고 외형 확장 할 것"

"체육인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교만 고창군체육회장은 민간 체육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안정적 예산 확보 ▲고창군체육회장 건립 ▲성가평가 시스템 도입 ▲홈페이지 구축 ▲직원 처우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오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라며 "체육 예산을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통합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효율적인 체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종목별, 대회별 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닌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수십명이 참가하는 대회와 수백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운영을



잘하는 종목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평가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고창군의 경우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 돼 있는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고인돌마라톤대회를 비롯해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는 "지난해 전북도민체육전을 성공적으로 치른만큼 14개 읍면에 체육시설이 잘 조성 돼 있다"며 "군청과 협력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 체육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군민건강과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체육시설과 농특산물, 그리고 관광자원이 접목된 스포츠마케팅과 레포츠 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 코로나19 극복 소외계층 돼지고기 100상자 나눔 행사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성수)는 23일 한돈자조금의 후원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돼지고기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는 1천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00상자(1,000kg)를 23개 읍면동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이성수 지부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웃과 상생하는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농촌진흥청, 대구 지역 소상공인 돕기 동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우리밀 가공품을 구입, 지난 22일 완주군 한마음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대구 지역에 위치한 우리밀 가공품 생산업체를 통해 우리밀로 만든 과자와 빵, 음료를 구입해 직원들이 손수 '꾸러미 밀 북주머니' 선물세트 25개를 만들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우리밀 가공품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 및 가공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0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5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3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리지사 010-6645-9935	필백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